

# 진주노동자 5,500명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3.17 18:22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역지부(이하 '진주지부') 노동자들이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진주지부는 1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대의원대회(▶아래기사-진주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참조)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확고한 배타적 지지와 4·9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돌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여전히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한 노동자 정당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진주지부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여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는 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전태일 열사와 같이 생존과 인간의 존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배신하지 않을 정당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 의미를 설명했다.

진주지부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노동당 패배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고 민주노동당 창당주체로서 민주노총은 이런 점에 대해 책임과 반성을 통감한다"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더욱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해낼 수 있도록 안받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진주지부는 "이명박 정부의 자본과 사용자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결국 1,500만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당선 되었지만 기업과 자본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일할지언정 대다수 노동자, 농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철저한 경쟁논리로 배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진주지부는 "당면한 18대 총선에서 진주의 5,500명의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노동자가 만든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민주노동당 총선후보 당선운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선승리 투쟁 결의를 다졌다.

한편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전 사업장은 18대 총선을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으로 규정하고, 총연맹과 도본부의 지침으로 전 간부의 비상동원령 선포와 선거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과 함께 "진주지역 5,500명 전 조합원 개개인이 민주노동당의 후보라는 자세로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b>◆진주시지부 대의원대회 결의문 전문</b>

단합과 단결로 민주노총이 모범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총선투쟁 승리하자.

우리는 8년 전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진보정치의 꿈을 안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진보 정당 운동의 전통과 현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하며 때로는 자신의 몸을 던져왔던 무수한 노동자, 농민, 빈민 열사들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내에 노동자, 농민, 서민 국회의원 단 1명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피워 올린 진보정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민중의 정당이다.

하지만 작금의 분열 상황은 민주노동당의 분열을 넘어 진보진영 전체의 분열과 공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직도 엄혹한 추위에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할 정당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당내의 자주파, 평등파의 분파 논쟁을 모른다. 단지 알고 있는 것은 노동자 정당의 열망과 정당성으로 활동한 자신들의 이력이 있을 뿐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분열로 가는 것은 다시는 비빌 언덕조차 가질 수 없다는 두려움 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분열은 일하는 사람들의 진보정치 실현이라는 약속으로 단합과 단결이 앞서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차이와 불신을 앞세우며, 민주노동당을 아끼고 기대하는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움과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재도약하라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현재의 분열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시 노동자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그 도도한 물줄기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진보의 희망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진주지역 지부는 분열로 치닫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혁신을 위한 모든 노력과 총선 승리를 위한 단결을 촉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노동당 총선후보를 선출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과 그토록 갈망하던 진보정치를 진주지역에서 실현할 것이며,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전조직을 동원하여 모범적으로 이번 총선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조건설의 노동자대투쟁을 벌여나갔던 정신과 2007년 11월11일, 12월1일, 민중총궐기투쟁에서 보여주었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진주지역에서부터 단합과 단결의 모범이 되어, 계급투표 조직화로 총선투쟁 승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8년 3월 13일

진주시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